

【 국내금융 뉴스 】

금융위, 법률비용보험 전업사 국내 첫 허가

- 금융위는 지난 6일에 개최된 제8차 정례회의에서 D.A.S.(Deutscher Automobil Schutz) 법률비용보험(주)의 보험업 영위를 허가함.
 - D.A.S. 법률비용보험(주)는 자본금 158억원을 납입함으로써 비용보험 가운데 법률비용보험 종목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음.
 - 여기서 말하는 법률비용보험이란 타인과의 법률적 이해관계 다툼으로 인한 변호사 자문·선임비용, 소송진행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함.
- D.A.S. 법률비용보험(주)은 독일의 Munich Re 보험그룹에 속한 법률비용보험사인 D.A.S. AG에서 99.8%를 출자하여 설립한 것임.
 - D.A.S. AG는 1928년 3월 설립된 보험사로 '08.12말 자기자본은 4,367억원이며, 주요주주는 Victoria AG(73%), ERGO Insurance Group AG(25%) 등임.
- D.A.S. 법률비용보험은 이르면 6월말이나 7월초 첫 법률비용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이는 가족의 법률분쟁비용을 보장해주는 개인용 상품과 기업용 상품을 구분하여 판매할 예정임.
 - 개인용 상품은 일반적인 가족이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 분쟁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도로교통사고 관련 법률비용 담보 및 부동산 임대차관련 법률비용 담보, 기타 법률비용 담보가 합쳐진 종합보험의 형태임.
 - 반면, 기업용 보험의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업종과 규모, 인력 구성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비용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사회적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처럼 국내에서도 법률비용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사가 처음으로 허가를 받음으로써 관련 상품이 판매되면 변호사 선임이나 소송비용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함.

(D.A.S. 법률비용보험(주)의 보험업 허가,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5/6)